

한국어와 아랍어 접속문의 대조 연구

다르위시 살마

(연세대학교)

Darwish, Salma. (2025). A contrastive study of the conjunctive sentence in Korean and Arabic.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3(2), 51-73.

This study aims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Arabic conjunctive sentence using the contrastive analysis method. The systems of conjunctive sentence in both languages were examined based on relevant theoretical literature, and their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were analyzed. It has been delineated that the Arabic Multiple sentence corresponds to the Korean coordinating sentence, and the Arabic complex sentence corresponds to the Korean subordinating sentence. Furthermore, it is revealed that Korean and Arabic connective markers not only do they connect two clauses, but also, they express the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lauses. In the context of the conjunctive sentence form, Korean is a converb-type language, while Arabic is a finite verb-type language. Similarly, the conjunctive markers of Arabic and Korean exist in all three types: zero conjunction, single conjunction, and double conjunction. Depending on the syntactic level, Korean conjunctive markers are different, while Arabic can have the same conjunctive markers at all syntactic levels. The coordinating sentence of Korean and both of Multiple sentence and complex sentences of Arabic can only be used for forward substitution, and only pronominalization and zero anaphora are possible. Finally, the Korean conjunctive markers are the underlying determinant for tense constraints, sentence component (subject-predicate) constraints, and grammatical closure constraints. Meanwhile, in Arabic, gender, number, and person must align within the identical components in the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s, consequently, the same case alignment exists between the conjunctive and the connected sentence.

주제어(Key Words): 한국어 접속문(Korean conjunctive sentence), 아랍어 접속문(Arabic conjunctive sentence), 접속문 체계(conjunctive sentence system), 접속표지(connective marker), 대조 연구(contrastive study)

1. 머리말

본 연구는 한국어와 아랍어의 접속문을 대상으로 대조·분석을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두 언어의 접속문을 관련 이론서를 바탕으로 대조·분석하여 양 언어의 접속문의 체계를 살피고 접속문이 가지고 있는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접속은 인간의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법 단위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아랍어에도 존재하며 두 언어의 문법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접속문은 그 표현 방식이 언어마다 다르다. 교착어에 속하는 한국어와 굴절어에 속하는 아랍어 역시 접속의 표현 형식이 다르다. 비교적 어미가 많이 발달해 있는 한국어는 접속문에서도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시킬 때 접속 어미가¹⁾ 사용되는 반면, 아랍어는 어미가 아닌 접속 불변화사(*particle*)에 의해 접속문이 만들어진다. 한국어의 접속 어미나 아랍어의 접속 불변화사는 접속문을 만들 뿐 아니라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의미 관계를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 즉 그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원인, 조건, 대립 등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한편, 한국어는 아랍어와 달리 접속 어미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고’나 ‘-며’와 같이 유사한 의미의 접속 어미 사이에도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다. 아랍어는 한국어와 달리 같은 접속 불변화사가 두 절을 연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통사 층위에서 접속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보았을 때, 아랍권 학습자들이 접속문에 대해 이해하는 것, 교수자가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에게 접속문을 가르치는 것은 모두 쉬운 일이 아닐 듯하다. 따라서 접속문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충분히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관련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두 언어의 접속문 관련 연구로는 한국어와 아랍어의 접문장 중 내포문을 대조하는 연구가 있으나 한국어와 아랍어의 접속문을 가지고 있는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대조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계연(2010)에서는 접속어를 대상으로 문장 층위와 단락 층위에서 한국어 소설을 아랍어로 옮기는 번역 과정에서 어떤 변화 양상을 띠게 되는지와 같은 문제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계연(2012)에서는 한국어로 된 뉴스와 소설 그리고 아랍어로 된 번역문에 사용된 지시, 반복, 접속과 같은 결속구조 장치들의 빈도와 양상을 고찰하며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두 연구가 한국어와 아랍어의 접속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본 연구와의 공통점인데 한국어와

1) 학교문법에서는 ‘접속 어미’를 ‘연결 어미’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접속문’이기 때문에 ‘연결 어미’라는 용어보다 ‘접속 어미’라는 용어를 택한다. 그리고 유현경(2011, p. 398)에는 ‘접속’이라는 용어는 ‘연결’이라는 용어와 달리 ‘접속 어미’, ‘접속조사’, ‘접속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어미’보다 ‘접속 어미’가 조사, 부사와의 관계를 잘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또한 한국어의 접속 어미와 아랍어 접속 불변화사를 둘 다 지시할 때는 ‘접속 표지’로 부른다.

아랍어 접속어 분류와 접속어 관련 번역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연구 범위와 연구 관점은 본 연구와 다르다. 해당 두 연구는 문장 층위와 단락 층위에서 접속어를 보는 것이나 본 연구는 문장 층위에서만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앞선 두 연구가 원문과 번역문 자료에서 접속어 빈도 및 사용 양상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번역 문제의 측면에서 알아보는 것이라면 본 연구는 양 언어 접속 표지의 분류보다 양 언어에서의 접속문의 지위, 유형 그리고 구성 방식을 살피고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기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아랍어의 접속 표현을 유형론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된 예를 들면서 설명하기는 하지만 아랍어와 한국어 접속 표현에 대한 대조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타 언어와 접속문을 대조하는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아시아권 연구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다양한 언어권의 접속문에 관한 대조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한류로 인해 여러 언어권의 학습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아랍권 한국어 학습자들이나 한국인 아랍어 학습자가 양 언어의 접속문을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통번역이나 한국어 교육 연구의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대조·분석을 통하여 접속문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후의 과정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어와 아랍어 접속문의 체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양 언어의 접속문이 가지고 있는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대조 연구 방법론을 이용하여 양 언어 접속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과 대상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와 아랍어의 접속문에 관한 이론서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아랍어 접속문의 체계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대조·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접속문과 아랍어 접속문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분석한 다음, 양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향후 과제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한국어와 아랍어 접속문의 체계

이 장에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한국어와 아랍어의 문장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양 언어의 접속문의 지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접속문의 유형과 구성 방식을 살펴보고 기능적·의미적 특징을 분석 하겠다.

2.1. 한국어 접속문 체계

남기심 외(2019, p. 341)에서는 (1a)와 같이 한 문장 안에서 주어 “인간”과 서술어 ‘사용하다’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고 있는 문장을 ‘홀문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1b)처럼 주어 “영화”와 “연극과 대중의 관계”, 서술어 ‘물려받다’와 ‘벌어지다’의 관계가 두 번 이루어질 수 있고 (1c)처럼 주어 “아빠”와 “네”, 서술어 ‘모르다’와 ‘있다’, ‘헤매다’의 관계가 세 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는 문장을 ‘접문장’이라고 한다.

- (1) a.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
 b. 영화가 연극의 대중성을 물려받았지만 연극과 대중의 관계가 벌어지지는 않았다.
 c. 아빠는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모르고 산속을 헤매겠구나.

(남기심 외, 2019, p.341에서 재인용)

그리고 접문장은 다시 ‘안은문장(내포문)’과 ‘이어진문장(접속문)’으로 나뉜다. (2a~e)와 같이 한 문장이 그 속에 다른 문장을 한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안은문장(내포문)’이라고 한다. 내포문 안에 있는 내포절은 전성 어미에 따라 (2a)명사절, (2b)서술절, (2c)관형절, (2d)부사절, (2e)인용절로 구분된다.

- (2) a. 지호가 돈이 많음이 분명하다.
 b. 지호가 키가 아주 크다.
 c. 나는 지호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d. 그 사람이 말도 없이 떠나 버렸구나!
 e. 누구나 인간은 존엄하다고 믿는다.

(남기심 외, 2019, pp.342-353에서 재인용)

연구 대상인 이어진문장(접속문)은 둘 이상의 문장들이 나란히 이어짐으로써 더 큰 한 문장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각 문장은 절이 된다. 그리고 접속 어미에 의하여 선행절과 후행절을 잇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두 절 사이의 의미 관계도 보여 주는데, 접속 어미와 의미 관계에 의하여 접속문은 다시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으로 구분된다.

- (3) a. 그는 값으나 그의 예술은 살아있다.
 b. 어제 저녁에는 방송을 듣느라고 숙제를 못했다.

(남기심 외, 2019, p.360에서 재인용)

(3a)는 대등 접속문인데 접속 어미 ‘-(으)나’는 앞절과 뒷절을 대등하게 이어 줄 뿐만 아니라 앞절의 내용과 뒷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3b)는 종속 접속문인데 접속 어미 ‘-느라고’에 의하여 두 절이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접속 어미 ‘-느라고’는 앞절이 뒷절의 ‘원인’이라는 의미 관계를 보여 준다. 권재일(2012, p.171)에서는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을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다시 체계화하였는데, 대등 접속문은 나열(순접) 관계, 대조(역접) 관계, 선택(선택) 관계로 하위분류하였다. 그리고 종속 접속문은 인과 관계, 조건 관계, 목적 관계, 평가 관계, 결과 관계, 첨의 관계, 강조 관계로 하위분류하였다. 다음 ‘표 1’을 통해 한국어 문장의 체계에서의 접속문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한국어 문장의 체계

문장 유형	주술 관계	특징
홀문장	하나	한 문장 안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짐
접문장	둘 이상	한 문장이 그 속에 다른 문장을 한 성분으로 안고 있음
	안은문장(내포문)	- 대등접속문 • 두 절이 대등하게 이어져 있음 - 이어진문장(접속문) • 종속접속문 • 두 절이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음

2.2. 아랍어 접속문 체계

Ibrahim Ebbada(2007, pp.136-150)에서는 아랍어 문장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³⁾ 문장의 종류를 6가지로 분류하였다. 단순문 ‘الجملة البسيطة’ [al-jumlaḥ al-basiṭa] (simple sentence), 확장문 ‘الجملة الممتدة’ [al-jumlaḥ al-mumtaddah] (extended sentence), 중복문 ‘الجملة المزدوجة أو المتعددة’ [al-jumlaḥ al-muzdawijah aw al-muta’addidah] (Multiple or double sentence), 복합문 ‘الجملة المركبة’

2) 접속문을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으로 분류하는 것은 종속 접속문의 문법적 지위를 부사절 내포문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과 관련하여 문제를 안고 있다. 최현배 (1971), 허웅 (1983), 고영근, 남기심 (1985), 권재일(2012)에서는 접속문을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으로 분류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이익섭·채완(1999), 유현경(1986), 남기심(2001), 최재희(2004)에서 이동 현상과 대응 현상 측면에서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 사이에 통사적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종속 접속문을 부사절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다.

3) Ibrahim Ebbada(2007, pp.132-135)에서는 전통 아랍 문법학자들은 문장을 주로 3가지 접근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둘째는 기능적 접근법으로 문장을 평서문 (Declarative Sentences), 명령문 (Imperative Sentences), 청유문(Propositive Sentence)으로 분류하였다. 둘째는 구조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문장의 일차적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명사문, 동사문, 부사문, 조건문으로 분류하였다. 셋째는 문장 안에 위치에 따라 격변화하는 문장과 격변화 하지 못하는 문장으로 분류하였다.

[al-jumlah al-murakkabah] (complex sentence), 내포문 ‘الجملة المتداخلة’ [al-jumlah al-mutadākhīyah] (embedded sentence), 얽힌 문장 ‘الجملة المتشابكة’ [al-jumlah al-mutashābikah] (tangled sentence) 이 그것이다.

단순문(simple sentence)과 확장문(extended sentence)은 둘 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다. 단순문은 (4a)와⁴⁾ 같이 동사문일 경우에는 서술어 ‘حضر’ [ḥaḍara]와 주어 ‘محمد’ [Muḥammad], (4b)와 같이 명사문일 경우에는 주제 ‘الشمس’ [al-sham]와 술어 ‘طالعة’ [ṭālī‘ah] 하나만 있는 문장이고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4c)와 (4d)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확장문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외에 그와 관련된 다른 부가적인 구성 요소 ‘صباحا’ [ṣabāḥan]와 ‘بين السحاب’ [bayna al-saḥāb]를 포함하는 문장이다. 부가적인 구성 요소는 동사문일 경우에는 목적어, 시간 부사 등이고 명사문일 경우에는 형용사, 상황 부사, 상태 부사, 전치사구 등이다.

(4) a. حضر محمد

[ḥaḍara Muḥammad⁵⁾]

AttendedPST.3.MSG Mohammed SBJ.MSG.3

‘Mohammed attended’

b. الشمس طالعة

[al-shams ṭālī‘ah]

TheDEF sunTOP risePRED

‘The sun is up’

c. حضر محمد صباحا

[ḥaḍara Muḥammad ṣabāḥan]

AttendedPST.3.MSG MohammedSBJ.MSG.3 morningADV. OF TIME

‘Mohammed came in the morning’

d. الشمس طالعة بين السحاب

[al-shams ṭālī‘ah bayna al-saḥāb]

TheDEF sunTOP risePRED betweenADV. OF PLACE cloudsGEN

‘The sun is rising between the clouds’

한편 본고의 연구 대상인 중복문(Multiple or double sentence)과 복합문(complex sentence)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중복문은 (5)와 같이 동사문의 주어는 ‘محمد’ [Muḥammad]과 ‘علي’ [‘Alī]이고 서술어는 ‘حضر’ [ḥaḍara]와 ‘وُغِبَ’ [ghāba]이다. 각 절이 독립적

4) 예문 (4)~(8)은 Ibrahim Ebbada(2007, pp. 136-150)에 가지고 온 것이다.

5) 본 연구에서 모든 아랍어는 ALA-LC Romanization (1997) 기준으로 표기된다.

의미를 가지며 다른 절에 의존하지 않는다. 즉, 각 절이 단순문이나 확장문이 될 수 있다. 또한 서로 접속 표지 ‘و’[wa]로 연결되어 있으며 선행절과 후행절이 나열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접속 표지는 대등적 불변화사인테 ‘و’[wa] (and), ‘ف’[fa] (and/ then), ‘ثم’[thumma] (then), ‘بل’[bal] (but)만 언급했다.⁶⁾

(5) حضر محمد وغاب علي

[ḥaḍara Muḥammad wa-ghāba ‘Alī]

AttendedPST.3.M.SG MohammedSBJ.M.SG.3 andCONJ Was AbsentPST.3.M.SG ealiSBJ.M.SG.3

‘Muhammad was present and Ali was absent’

그런데 복합문은 한 절이 다른 절에 의존한다. 하나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하나는 완전하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 절은 두 절 사이의 의미 관계를 보여 주는 불변화사(particle)로 연결된다. 그 의미 관계는 조건 관계, 시간이나 장소 관계, 결과 관계, 인과 관계, 역접이나 제외 관계, 동반 관계, 비유 관계, 강조 관계 등이다. (6)과 같이 앞절의 서술어는 ‘حضر’ [ḥaḍara]이고 주어는 ‘السواح’ [al-sūwāḥu]인데 뒷절의 ‘يشاهدوا’ [yushāhidū]에는 서술어는 ‘يشاهد’ [yushāhid]이고 주어는 그 서술어에 붙어 있는 접속형 대명사 ‘و’ [w]이다. 그리고 ‘كـ’ [kay]에 의하여 두 절을 연결하여 뒷절이 앞절에 대해 ‘원인’의 의미 관계를 드러내 준다.

(6) حضر السواح كي يشاهدوا الآثار المصرية

[ḥaḍara al-suwāḥu kay yushāhidū al-āthāra al-miṣriyyah]

CamePST.3.M.SG TouristsSBJ.M.3.pl. ToPTCL SeePRS-themPRON.SBJ.3.pl. TheDEF antiquitiesOBJ EgyptianGEN.

‘Tourists came to see the Egyptian antiquities.’

(7) قرأت كتابا علمه غزير

[qara’tu kitāban ‘ilmuhu gazīr]

Read PST.SG-I PRON.SBJ.1 a bookOBJ knowledgeTOP-itsPRON.GEN abundant PRED.

‘I read a book that is very knowledgeable’

6) Mohammed Eid(1971, pp. 607-618)에는 아랍어 전통 학자는 ‘حروف العطف’ [hurūf al-’atf] (connective particles)는 대부분 9개로 나누었다. ‘و’[wa] (and), ‘ف’[fa] (and/then), ‘ثم’ [thumma] (then), ‘بل’ [bal] (rather/but actually), ‘حتى’ [until] (ḥat : a), ‘أو’ [ʔaw] (or), ‘أم’ [ʔam] (or), ‘لكن’ [la : .kʰin] (But), ‘لا’ [la :] (not)의 9개로 나누었다.

내포문(embedded sentence)은 앞의 (7)과 같이 주술 관계를 두 번 이상 가지고 있는데 한 절이 다른 절에 내포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얽힌 문장(tangled sentence)도 주술 관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 구성 방식은 복합문(complex sentence)과 내포문(embedded sentence)을 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랍어 문장의 체계에서 접속문의 위상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아랍어 문장의 체계

문장 유형	주술 관계	특징
단순문	하나	• 주술 관계 외에 부가적인 구성 요소가 없는 문장 •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확장문	하나	• 주술 관계 외에 그와 관련 다른 부가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문장
중복문	둘 이상	• 각 절이 독립적 의미를 가지며 다른 절에 의존하지 않는다 • 서로 접속 표지로 연결되어 있다 • 한 절이 다른 절에 의존한다.
복합문	둘 이상	• 하나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하나는 완전하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두 절 사이에 의미 관계를 보여 주는 불변화사 (particle)로 연결해 준다
내포문	둘 이상	• 한 절이 다른 절에 내포된다
얽힌 문장	둘 이상	• 복합문과 내포문을 합해서 구성된다

정리하자면 Ibrahim Ebbada(2007, pp. 136-150)에서는 아랍어 문장의 분류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는지에 따라 정리한다. 한국어의 체계와 비교하자면 단순문 ‘الجملة البسيطة’ [al-jumlah al-basīṭah]과 확장문 ‘الجملة الممتدة’ [al-jumlah al-mumtaddah]은 한국어 체계에는 홀문장에 대응된다. 그리고 중복문 ‘الجملة المزدوجة أو المتعددة’ [al-jumlah al-muzdawijah aw al-muta’addidah]과 복합문 ‘الجملة المركبة’ [al-jumlah al-murakkabah]과 내포문 ‘الجملة المتداخلة’ [al-jumlah al-mutadākhīyah]과 얽힌 문장 ‘الجملة المتشابكة’ [al-jumlah al-mutashābikah]은 한국어 체계에는 겹문장에 대응된다. 각각의 구성 방식과 특성을 보면 중복문 ‘الجملة المزدوجة أو المتعددة’ [al-jumlah al-muzdawijah aw al-muta’addidah]은 대등 접속문으로 대응되고 복합문 ‘الجملة المركبة’ [al-jumlah al-murakkabah]은 종속접속문으로 대응된다. 그리고 내포문 ‘الجملة المتداخلة’ [al-jumlah al-mutadākhīyah]은 내포문으로 대응된다.

양 언어의 문법 체계 중 본고의 연구 대상인 접속문에서 한국어의 접속 어미와 아랍어의 접속 불변화사는 두 절을 형식적으로 잇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절 간의 의미 관계를 드러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대등 접속문의 접속 어미는 나열 관계,

대조 관계, 선택 관계를 보여 준다. 그리고 종속 접속문의 접속 어미는 인과 관계, 조건 관계, 목적 관계, 평가 관계, 결과 관계, 첩의 관계, 강조 관계를 보여 준다. 아랍어에서 중복문 ‘الجملة المزدوجة أو المتعددة’ [al-jumlah al-muzdawijah aw al-muta‘addidah]의 접속 불변화사는 나열 관계, 순서 관계, 대조 관계를 보여 주고 복합문 ‘الجملة المركبة’ [al-jumlah al-murakkabah]의 불변화사는 조건 관계, 시간이나 장소 관계, 결과 관계, 인과 관계, 역접이나 제외 관계, 동반 관계, 비유 관계, 강조 관계를 보여 준다.

또한 접속문의 형식을 보면 이익섭(2005, p. 310)에서는 두 절을 접속하여 문장을 이루는 형식에 따라 ‘접속사형’, ‘부동사형(converb)’, ‘고립어형’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어는 대등 접속문 주절의 서술어가 ‘살아 있다’(8), 종속 접속문 주절의 서술어가 ‘못했다’(9)와 같이 정동사로 나타난다. 반면 접속 어미를 취한 ‘갔으나’와 ‘듣느라고’는 부동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독립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어는 부동사형 언어라고 할 수 있다.

(8) 그는 갔으나 그의 예술은 살아 있다.

(9) 어제 저녁에는 방송을 듣느라고 숙제를 못했다.

반면 아랍어는 (10)의 중복문 ‘الجملة المزدوجة أو المتعددة’ [al-jumlah al-muzdawija aw al-muta‘addida]이나 (11)의 복합문 ‘الجملة المركبة’ [al-jumlah al-murakkaba]에서 볼 수 있듯 주절의 서술어 ‘حضر’ [ḥaḍara]는 3자근 과거 동사이고 접속 불변화사로 연결된 절의 서술어 ‘غاب’ [ghāba]도 3자근 과거 동사이다. 그리고 접속절의 ‘يشاهدوا’ [yushāhidū]는 3자근 동사인 데 한 글자인 ‘ا’ [ā]가 추가되며 앞에 붙는 ‘ي’ [yu-]는 현재형 표시되고 뒤에 붙는 ‘وا’ [-ū]는 주어인 접미형 인칭대명사이다. 확인하듯이 이 3 동사는 정동사라서 아랍어는 접속사형 언어라고 할 수 있다.

(10) حضر محمد وغاب علي

[ḥaḍara Muḥammad wa-ghāba ‘Alī]

AttendedPST.3.M.SG MohammedSBJ.M.SG.3 andCONJ Was AbsentPST.3.M.SG ealiSBJ.M.SG.3

‘Muhammad was present and Ali was absent’

(11) حضر السواح كي يشاهدوا الآثار المصرية

[ḥaḍara al-sūwāḥ kay yushāhidū al-āthār al-miṣriyyah]

CamePST.3.M.SG TouristsSBJ.M.3.pl. ToPTCL SeePRS-themPRON.SBJ.3.pl. TheDEF antiquitiesOBJ EgyptianGEN.

‘Tourists came to see the Egyptian antiquities.’

3. 한국어와 아랍어 접속문 대조

이 장에서는 한국어와 아랍어 접속문의 접속 표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양 언어 접속문의 통사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대응 현상’과 ‘호응 현상’의 측면에서 분석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양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힌다.

3.1. 한국어와 아랍어의 접속 표지 대조

앞에 언급했듯이 접속문의 접속 표지는 두 절을 잇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절 사이의 의미 관계도 드러내 준다. 이에 따라 접속문을 만드는 데에 접속 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양 언어의 접속 표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양 언어의 접속 표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에서는 ‘어미’에 속하고 아랍어에는 ‘불변화사’의 하위분류에 속한다. 즉, 둘 다 독립적인 품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접속 표지를 김원필 외(2008)에서 언급한 통사 층위에 따른 접속 표지, 접속 표지의 수에 따른 유형, 접속 표지의 위치와 기본 어순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겠다.

3.1.1. 통사 층위에 따른 접속 표지

접속 표지는 단어, 구, 절, 문장과 같이 다양한 통사 층위에서 일어난다. 언어에 따라 접속 표지가 통사 층위마다 달리 나타날 수 있고 모든 통사 층위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어는 전자에 해당하는 반면 아랍어는 후자에 해당한다. 한국어는 다음 예문과 같이 (12a)처럼 단어를 접속할 경우에는 조사인 ‘-와/과’가 쓰이고 (12b)처럼 절을 접속할 경우에는 어미인 ‘-고’가 쓰이며 (12c)처럼 문장을 접속할 경우에는 부사인 ‘그리고’가 쓰인다.

(12) a. 철수와 영희

b. 철수는 영희를 만나고 영수는 순희를 방문했다.

(김원필 외, 2008, p. 573에서 재인용)

c. 철수는 영희를 만났다. 그리고 영수는 순희를 방문했다.

한편 아랍어는 다음 예문과 같이 모든 통사 층위에서 ‘و’ [wa/and]가 쓰일 수 있다. (13a)에서는 단어를, (13b)에서는 유사 문장을, (13c)에서는 절을, (13d)에서는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데 모두 동일하게 ‘و’ [wa/and]가 쓰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3) a. جاء حسن وسعيد

[Jā'a Ḥasan wa-Sa'id]

CamePST.3.MSG HassanSBJ, NOM.MSG.3 andCONJ. SaeedCNJ, NOM
 ‘Hassan and Saeed came’

b. ذهبت إلى القاهرة وإلى الإسكندرية

[Dhahabtu ilā al-Qāhirah wa-ilā al-Iskandariyyah]

WentPST.SG-I PRON.SBJ.1 toPREP CairoGEN andCONJ. toPREP AlexandriaGEN
 ‘I went to Cairo and Alexandria’

c. مارس الرياضة وأكل الطعام الصحي

[‘umārisu al-riyāḍah wa’ākulu al-ṭa’ām al-ṣiḥḥi]

DoPRS.SG.1 TheDEF ExerciseOBJ andCONJ. EatPRS.SG.1 TheDEF FoodOBJ
 TheDEF healthy ADJ.

‘I exercise and eat healthy food.’

(이병학, 2014, p. 209에서 재인용)

d. مارس الرياضة. وأكل الطعام الصحي

[‘umārisu al-riyāḍah. wa’ākulu al-ṭa’ām al-ṣiḥḥi]

DoPRS.SG.1 TheDEF ExerciseOBJ. AndCONJ. EatPRS.SG.1 TheDEF FoodOBJ
 TheDEF healthy ADJ.

‘I exercise. I eat healthy food.’

3.1.2. 접속 표지의 수에 따른 유형

접속 표지의 수에 따라서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가 가능하다. 언어에 따라 무표지형, 단일 표지형, 이중 표지형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접속문을 만들 수 있다. 무표지형은 접속 표지 없이 두 표현을 단순히 병치시키는 것이다. 단일 표지형은 접속 표지를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고 Heine(2004, p. 1)에 따르면 이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그리고 이중 표지형은 접속문에서 접속 표지가 두 번 실현되는 것이다.

김원필 외(2008, p. 572)에서는 한국어가 단일 표지형 언어이며 무표지형이나 이중 표지형도 종종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14) a. 철수, 영희, 영호만 간다.
 b. 철수와 영희가 들어간다.
 c. 철수하고 영희하고 학교에 간다.

(김원필 외, 2008, p. 572에서 재인용)

7) 김원필 외(2008, p. 491)의 재인용

위의 예문과 같이 한국어에서는 (14a)에는 무표지형, (14b)에는 단일 표지형, (14c)에는 이중 표지형이 모두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랍어에서도 한국어와 같이 단일 표지형이 가장 일반적으로 실현된다. 정규영(2016, p. 4)에서는 아랍어의 경우 무표지형과 이중 표지형이 존재하지 않고 형용사구 접속에서만 접속 표지가 없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러나 다음 예문과 같이 아랍어에서 무표지형, 단일 표지형, 이중 표지형이⁸⁾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15) a. ذهب علي، جاء أحمد

[Dhahaba 'Ali, jā'a 'Aḥmad]

CamePST.3.MSG AhmedSBJ.NOM.M.SG., WentPST.3.MSG AliSBJ.NOM.M.SG.

'Ali went, Ahmed came'

b. القلم في الدرج، الكتاب على الطاولة

[al-Qalam fī al-daraj, al-kitāb 'alā al-ṭāwilah]

TheDEF BookTOP OnPREP TheDEF TableGEN, TheDEF PenTOP InPREP

TheDEF DrawerGEN.

'The pen is in the drawer, the book is on the table.'

c. الجو لطيف جميل

[al-jaww laṭīf jamīl]

TheDEF weatherTOP Nice PRED Beautiful ADJ.

'The weather is nice and beautiful'

위 예에 대해 서술해 보자면, 먼저 아랍어에서 명사는 접속 표지 없이 나열되지 않으나 (15a), (15b)와 같이 두 절을 연결할 때 접속 표지가 생략된 채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15c)에는 두 형용사 'لطيف' [laṭīf], 'جميل' [jamīl]가 나열되어 있는데 무표지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아랍어에 무표지형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16) حضر محمد وغاب علي

[Ḥaḍara Muḥammad wa-ghāba 'Ali]

AttendedPST.3.MSG MohammedSBJ.M.SG.3 andCONJ WasAbsentPST.3.MSG ealiSBJ.M.SG.3

'Muhammad was present and Ali was absent'

8) 김원필 외(2008, p. 608)에서 영어에는 이중 표지형에 'both-and, either-or, neither-nor' 등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이중 표지형은 무조건 같은 접속 표지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접속 표지가 두 번 이상 나타나서 한 덩어리로 쓰이는 것이다.

- (17) a. قررنا إتمام المشروع سواء حضر الجميع أم غاب بعضهم
 [Qarrarnā 'itmām al-mashrū' sawā ḥaḍara al-jamī' am ghāba ba'duhum]
 DecidedPST-WePRON.SBJ.1.pl. completionOBJ TheDEF projectGEN whetherAVN
 CamePST.MSG EveryoneSBJ. OrCONJ absentPST.MSG someSBJ.-them.PRON.GEN.3.pl.
 'We decided to complete the project whether everyone was present or absent.'
- b. إعن حب الناس تبحث أم عن احترامهم
 ['A'an ḥubb al-nās tabḥath am 'an iḥtirāmihim?]
 AreIQP forPREP loveGEN TheDEF peopleGEN looking PRS.SG.2 OrCONJ
 forPREP respectGEN-their PRON.GEN.3.pl.?
 'Are you looking for people's love or their respect?'
 (Mohammed Eid, 1971, p. 612에서 재인용)
- c. هذا السلام إما أن يكون شاملاً أو لا يكون أيضاً
 [Hādhā al-salām 'immā an yakūna shāmilan aw lā yakūna abadan]
 ThisDM.TOP TheDEF peaceTOP EitherConj BePRS.SG. ComprehensivePRED
 OrConj Not Neg BePRS.SG EverADV. OF TIME.
 'This peace is either comprehensive or it is not at all.'
 (Ryding, 2005, p. 418에서 재인용)

(16)은 단일 표지형이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17)은 이중 표지형에 대한 예문인데 접속 표지 'أم' ['am] (Or)는 (17a)와 같이 'سواء' [sawā] (whether)이라는 말과 같이 나오거나 (17b)와 같이 의문 불변화사 'أ' [A]같이 한 표현으로 나타난다. 또한 접속 표지 'أو' ['aw](Or)는 (17c)에 나온 것처럼 'إما' ['immā] (Either)가 앞에 나타나서 한 표현으로 쓰인다. 따라서 아랍어는 한국어와 같이 무표지형, 단일표지형, 이중 표지형은 모두 실현될 수 있다고 하겠다.

3.1.3. 접속 표지의 위치와 기본 어순

언어에 따라 접속 표지의 위치도 다르다. Haspelmath(2004)에서는⁹⁾ 접속 표지 위치의 유형을 '[A] co [B]' 유형, '[A] [co B]' 유형, '[A co] [B]' 유형, '[A][B co]' 유형, '[co A] [B]'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어는 '[A co] [B]' 유형에 속하는 반면, 아랍어는 '[A] [co B]' 유형에 속한다. 이는 접속 표지의 위치가 언어의 기본 어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국어는 SOV 형에 속하는 언어라 핵어 후치형(head-final)언어이다. (18)과 같이 접속 표지가 피접속어에 붙어서 뒤에 오는 것이다. 한편 아랍어는 VSO 형(동사문)과 그 변형인

9) 김원필 외 외(2008, p. 574)의 재인용

SVO 형(명사문)인데 핵어 전치형(head-initial) 언어이다. 즉, (19)와 같이 접속 표지가 접속어 앞에¹⁰⁾ 나타난다.

(18) [철수는 영희를 만나고] 영수를 방문했다. (김원필 외, 2008, p. 575에서 재인용)

(19) جاء حسن وسعيد

[jā'a Hasan [wa-Sa'id]]

CamePST.3.MSG HassanSBJ. NOM.M.SG.3 [andCONJ. SaeedCNJ. NOM].

'Hassan and Saeed came'

요컨대 한국어와 아랍어는 접속 표지를 독립적인 품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통점이다. 한국어의 접속 표지는 '어미'에 속하고 아랍어의 접속 표지는 '불변화사'의 하위분류에 속한다. 그리고 아랍어와 한국어는 무표지형, 단일 표지형, 이중 표지형 모두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다만 아랍어에는 명사가 접속 표지 없이 나열되지 않는다. 두 언어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한국어는 통사 층위에 따라 접속 표지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나 아랍어는 모든 통사 층위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접속 표지의 위치도 다른데 한국어는 핵어 후치형 언어로서 '[A co] [B]' 유형에 해당한다. 반면 아랍어는 핵어 전치형 언어로서 '[A] [co B]' 유형에 해당한다.

3.2. 대용 차이

남기심(2001, p. 257)에서 '대용화'는 동일한 문장 안에서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같은 요소가 되풀이될 때 언어 사용의 경제성을 위하여 잉여적 표현을 제거하기 위해서, 좀 더 간략한 언어 표현으로 대체하여 쓰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체되는 대용어의 종류는 대명사화, 재귀화, 무형 대용화로 나누었다. 또 대용의 방향은 순행 대용과 역행 대용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한국어의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에서 대용화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도록 하겠다. 다음 예문과 같이 대등 접속문에서는 순행 대용일 경우에 (20a)와 같이 대명사화, (20b)와 같이 무형 대용화는 가능하지만 (20c)와 같이 재귀화는 불가능하다.

(20) a. 헤인이는 선생님이고 그녀의 남편은 대학원생이다.

b. 헤인이는 선생님이고 ∅ 남편은 대학원생이다.

c. *헤인이는 선생님이고 자기의 남편은 대학원생이다.

(남기심, 2001, p. 258에서 재인용)

10) 아랍어는 접속 표지 'و' [wa] (and) 및 'ف' [fa] (and/then)만 띄어쓰기 없이 접속어 앞에 나타나지만 나머지는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역행일 경우 ‘*그녀는 선생님이요 헤인이의 남편은 대학원생이다.’, ‘*선생님이요 헤인이의 남편은 대학원생이다.’, ‘*자기는 선생님이요 헤인이의 남편은 대학원생이다.’와 같이 대용화의 세 가지가 모두 불가능하다.

한편 남기심(2001, p. 258)에서 종속 접속문은 순행 대용일 경우에는 대등 접속문과 달리 (21a)과 같이 대명사화, (21b)과 같이 무형 대용화, (21c)과 같이 재귀화가 모두 허용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¹¹⁾

- (21) a. 김 부장은 그의 집이 부자여서 낭비벽이 있었다.
b. 김부장은 ∅ 집이 부자여서 낭비벽이 있었다.
c. 김부장은 자기의 집이 부자여서 낭비벽이 있었다.

(남기심, 2001, p.259에서 재인용)

그리고 역행 대용일 경우에도 종속 접속문은 대등 접속문과 비교하면 역시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남기심(2001, p. 258)에서 ‘그의 집이 부자여서 김 부장은 낭비벽이 있었다.’, ‘집이 부자여서 김부장은 낭비벽이 있었다.’, ‘자기의 집이 부자여서 김 부장은 낭비벽이 있었다.’와 같이 대용화의 세 가지 양상이 모두 허용된다고 하였다.¹²⁾

이제 아랍어의 대용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랍어에서도 두 문장이 이어질 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앞절에 이미 언급된 요소는 뒷절에서 생략되거나 대명사로 대용된다. 아랍어에는 중복문(Multiple or double sentence)과 복합문(complex sentence)

- 11)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예문 (21)에는 bound variable이 NP내의 spec 위치에 있으며 접속문의 실질적인 주어는 집인데 아랍어의 예문과 같이 bound variable이 주어 그 자체인 경우 ‘*김 부장은 그가 집이 부자여서 낭비벽이 있었다.’와 ‘*그가 부자여서 김 부장은 낭비벽이 있었다.’와 같이 대명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어 종속 접속문은 순행 대용일 경우에는 대명사화, 무형 대용화, 재귀화가 모두 허용될 때가 있고 bound variable은 주어가 될 경우에는 대명사화는 허용되지 않고 무형 대용화와 재귀화만 허용된다. 이 예문은 아랍어로 번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오히려 대명사화는 허용되지만 무형 대용화나 재귀화는 불가능하다. 아랍어는 주어가 있어야 하는 언어이고 특정한 통사적인 경우만 생략될 수 있기 때문이다.

(i) المدير كيم لأن عائلته غنية لديه الميل إلى إنفاق الأموال

almudir kim li'ana eayilatah ghaniat ladayh almayl 'iilaa 'iinafaq al'amwal
'Manager Kim because he is rich has the tendency to spend money'

(ii) لأنه غني المدير كيم لديه الميل إلى إنفاق الأموال

li'anah ghani almurdir kim ladayh almayl 'iilaa 'iinafaq al'amwal
'Because he is rich, Manager Kim has the tendency to spend money'

- 12) 이 차이로 인해 남기심(2001)에서는 종속 접속문은 내포문의 부사절에 포함하는 구성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학교문법 체계를 따랐고 종속 접속문에 대한 논쟁은 본 연구의 문제점과 떨어져 여기까지만 언급 하겠다.

의 대용화 양상이 같다. 즉, 둘 다 대명사화와 무형 대용화만 가능하며 순행 대용만 나타난다.

(22) a. حضر محمد وأكرمته

[Ḥaḍara Muḥammad wa- 'akramtuhu]

AttendedPST.3.MSG Mohammed SBJ.M.SG.3 AndCONJ honoredPST.M.SG
IPRON.SBJ.1 HimPRON.OBJ.M.SG.3

'Muhammad attended and I honored him'

b. قرأ الطالب السؤال وفهمه

[Qara'a al-ṭālib al-su'āl wa-fahamahu]

ReadPST.3.MSG TheDEF studentSBJ. TheDEF questionOBJ AndCONJ
understoodPST.3.MSG itPRON.OBJ.SG.3

'The student read and understood the question.'

(Ibrahim Ebbada, 2007, p. 139에서 재인용)

c. قاوم الشعب المستعمرين حتى انتصر عليهم

[Qāwama al-sha'b al-musta'mirīn ḥattā intasar 'alayhom]

ResistedPST.3.MSG TheDEF PeopleSBJ. TheDEF ColonistsOBJ UntilPTCL
DefeatedPST.3.MSG OverPREP ThemPRON.GEN.3.pl.

'The people resisted the colonists until they defeated them.'

(Ibrahim Ebbada, 2007, p. 143에서 재인용)

위의 예문에서 (22a)와 (22b)는 중복문이고 (22c)는 복합문이다. (22a)를 보면, 앞절에서 주어인 'محمد' (Muḥammad)이라는 요소가 나와 뒷절에서는 'محمد' (Muḥammad)이라는 요소 대신 대명사인 'هو' [hu] (him)가 사용되었다. (22)은 앞절에서 주어인 'الطالب' [al-ṭālib] (student)가 뒷절에서 생략되어 무형 대명사 'هو' [huwa] (he)로 대용되었다. 그리고 앞절에서 목적어인 'السؤال' [al-su'āl] (question)은 뒷절에서 접미 대명사인 'هو' [hu] (it)로 대용되었다. (22c)에서는 앞절의 주어인 'الشعب' [al-sha'b] (People)은 뒷절에서 생략되고 앞절의 목적어인 'المستعمرين' [al-musta'mirīn] (Colonists)은 뒷절에서 'هم' [hom] (them)로 대용된다.

정리하자면 한국어와 아랍어에서는 모두 대용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양상은 다르다. 한국어에서는 종속 접속문이 순행 대용과 역행 대용일 때 대명사화, 재귀화, 무형 대용화가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다. 반면 대등 접속문은 순행 대용일 때만 대명사화, 무형 대용화만 가능하다. 한편 아랍어에서는 중복문 (Multiple or double sentence)과 복합문 (complex sentence)은 한국어의 대등 접속문과 같이 순행 대용일 때만 대명사화와 무형 대용화만 가능하다.

3.3. 호응 현상

한국어와 아랍어의 접속문에서는 모두 성분 사이에 호응 현상이 나타난다. 다만 호응 양상은 다르다. 한국어 접속문에는 시제 제약, 문장 성분(주어-서술어) 제약, 문법 종결법의 제약이 있다. 권재일 (2012, p. 191)에서는 접속문에서의 문법 제약의 주체는 접속 어미라고 밝히고 있다.

- (23) a. *현관문을 나섰자 비가 왔다.
 b. *수호가 음악을 들으면서 지유가 공부를 한다.
 c. *수호가 예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다.

(유현경 외, 2018, pp. 471-472에서 재인용)

접속문에서는 접속 어미에 따라 ‘-았-’, ‘-겠-’의 선어말 어미가 결합할 수 있고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다.¹³⁾ (23a)과 같이 접속 어미 ‘-자’는 앞절에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였을 때 비문이 된다. 그리고 접속 어미 중에 ‘-느라고’, ‘-(으)러’, ‘-(으)면서’ 등은 두 절의 주어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23b)과 같이 앞절의 주어가 뒷절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문이 된다. 그리고 접속 어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 특성 때문에 접속 어미와 결합하는 서술어가 제약을 받을 때도 있다. (2c)과 같이 접속 어미 ‘-(으)려고’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고 서술어가 동사여야 한다.

- (24) a. *날씨가 좋아서 소풍을 가자.
 b. 날씨가 좋으니까 소풍을 가자.

문법 종결법의 제약을 받는 경우는 위의 예문과 같이 ‘-아/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뒷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고 평서문이 와야 한다.

한편 아랍어는 접속문에서 앞절과 뒷절의 동일 성분 사이에 성, 수, 인칭이 일치해야 한다.¹⁴⁾ 그리고 접속 문장은 피접속 문장과 격이 일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접속 문장이 격

13) 유현경 외(2018, p. 470)에는 접속 어미 중에는 ‘-았-’, ‘-겠-’의 선어말 어미 결합 제약이 어미들이 있다. ‘-았-’, ‘-겠-’의 결합 제약 : -아/어서, -고자, -자, -(으)러, -(으)려고, -(으)ㄹ 들, -건대, -느라고
 ‘-겠-’의 결합 제약 : -다가, 듯이, (으)ㄹ 망정, (으)ㄹ 지라도, 어야

14) 아랍어에서 접속 불변화사는 두 명사를 접속할 때는 접속 명사는 피접속 명사와 격과 한정 형태가 일치한다. 피접속 명사 ‘حسن’ [Hasan]는 주격이라서 접속 명사 ‘سعيد’ [Sa’id]도 주격이 된다. 문장도 마찬가지로 인데 접속 문장은 피접속 문장과 격이 일치한다.

جاء حسن وسعيد

[Jā’a Hasan wa-Sa’id]

이 변화하는 문장이면 접속 문장도 격이 변화하는 문장이 되어야 하고 피접속 문장이 격변화를 하지 못하는 문장이면 접속 문장도 격변화를 하지 못하는 문장이 되는 것이다.

(25) a. لم يحضر الوزير بل حضر نائيه

[Lam yaḥḍar al-wazīr bal ḥaḍara nā'ibuhu]

NotPTCL attendsPRS. 3.M.SG TheDEF ministerSBJ. butCONJ attendedPST.3.MSG deputySBJ. his PRON.GEN. Ibrahim Ebbada(2007:139)

‘The minister did not attend, but his deputy did.’

b. حضر السواح كي يشاهدوا الآثار المصرية

[Ḥaḍara al-sawwāḥ kay yushāhidū al-āthār al-miṣriyyah]

CamePST.3.M.SG TouristsSBJ.M.3.pl. ToPTCL SeePRS-themPRON.SBJ.3.pl. TheDEF antiquitiesOBJ EgyptianGEN.

‘Tourists came to see the Egyptian antiquities’

c. قال المعلم العلم نور والعمل عبادة

[Qāla al-mu'allim al-ilm nūr wa-al-'amal 'ibādah]

saidPST.3.M.SG TheDEF teacherSBJ. TheDEF KnowledgeTOP lightPRED and TheDEF workTOP worshipPRED.

‘The teacher said: Knowledge is light and work is worship.’

위의 예문을 보면 (25a)의 앞절에서 서술어 ‘يحضر’ [yaḥḍar] (attend)와 주어 ‘الوزير’ [al-wazīr] (minister) 사이에 호응 현상이 일어났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절과 접속절의 서술어는 정동사인테 주어는 단수 남성이기 때문에 동사 3자근 동사 ‘حضر’ [ḥaḍar] 앞에 단수 남성을 위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ي’ [ya]를 붙였다. 그리고 뒷절에서도 서술어 주어 ‘نائيب’ [nā'ibuhu]은 단수 남성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의 동사는 3자근 ‘حضر’ [ḥaḍar] 상태로 남는다. 또한 앞절과 뒷절의 동일 성분 사이에 호응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절에 단수 남성 주어 ‘الوزير’ [al-wazīr] (minister)가 뒷절에 대명사화로 나타날 때는 단수 남성 3인칭을 나타내는 접미 대명사 ‘ه’ [hu](his)를 붙였다. 마지막으로 피접속 문장 ‘لم يحضر الوزير’ [Lam yaḥḍar al-wazīr]은 격변화를 하지 못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 문장 ‘حضر نائيه’ [ḥaḍara nā'ibuhu]도 격변화를 하지 못하는 문장으로 나타난다. (25b)에는 앞절과 뒷절의 동일 성분이 있는데 앞절 주어 ‘السواح’ [al-sawwāḥ] (Tourists)는 복수 남성이기 때문에 뒷절에 대명사화로 나타날 때는 동사 앞에 남성을 위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ي’ [yu]를 붙이고 동사 뒤에 복수 남성 3인칭을 나타내는 접미 대명사 ‘وا’ [u]를 붙였다. (25c)의 피접속 문장 ‘العلم نور’ [al-ilm nūr]이 명사문이고 격변화를 하는

CamePST.3.M.SG Hassan SBJ.M.SG.3 AndCONJ SaeedCNJ. NOM

‘Hassan and Saeed came’

문장인데 목적어로서 대격이다. 이에 따라서 명사문인 ‘العمل عبادة’ [al-‘amal ‘ibādah]의 접속 문장도 대격이 된다.

또한 아랍어 접속문에서 접속 불변화사의 특성 때문에 시제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 복합문 ‘الجملة المركبة’ [al-jumlah al-murakkabah]에서 ‘حتى’[ḥattā](until)는 뒷절이 앞절의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인데 뒤에 과거형 동사가 와야 한다. 다음 예문 (26)와 같이 주절과 접속절의 동사는 정동사인 ‘قاوم’ [Qāwama]는 3자근 동사에 한 글자 ‘I’가 추가된다. 그리고 ‘انتصر’ [‘intasar]는 3자근 동사에 두 글자 ‘I’와 ‘ت’가 추가된다. 그리고 ‘حتى’[ḥattā] 뒤에는 ‘انتصر’ [‘intasar] (Defeated)이라는 동사가 과거형이다.

(26) قاوم الشعب المستعمرين حتى انتصر عليهم

[Qāwama al-sha'b al-musta'mirīn ḥattā 'intasar 'alayhim]

ResistedPST.3.MSG TheDEF PeopleSBJ. TheDEF ColonistsOBJ UntilPTCL

DefeatedPST.3.MSG OverPREP ThemPRON.GEN.3.pl.

‘The people resisted the colonists until they defeated them.’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와 아랍어의 접속문을 대상으로 삼아, 대조·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 연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양 언어의 접속문을 관련 이론서를 바탕으로 접속문의 체계를 살펴보고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느냐에 따라 한국어는 ‘홀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겹문장은 한 문장이 그 속에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등을 내포하고 한 성분으로 안고 있는 내포문, 그리고 둘 이상의 절이 접속 어미에 의하여 연결되는 접속문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접속문은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으로 구분한다. 한편 Ibrahim Ebbada(2007: 136-150)을 참조하면, 아랍어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 관계가 한 번 나타나면 단순문 ‘الجملة البسيطة’ [al-jumlah al-basīṭah]과 확장문 ‘الجملة الممتدة’ [al-jumlah al-mumtaddah]으로 나뉘고 두 번 이상 나타나면 중복문 ‘الجملة المزدوجة أو المتعددة’ [al-jumlah al-muzdawijah aw al-muta‘addidah]과 복합문 ‘الجملة المركبة’ [al-jumlah al-murakkabah]과 내포문 ‘الجملة المتداخلة’ [al-jumlah al-mutadākhiyah]과 얹힌 문장 ‘الجملة المشابكة’ [al-jumlah al-mutashābikah]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 언어의 체계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단순문 ‘الجملة البسيطة’ [al-jumlah al-basīṭah]과 확장문 ‘الجملة الممتدة’ [al-jumlah al-mumtaddah]

은 한국어의 흘문장으로 대응된다. 그리고 중복문 ‘الجملة المزدوجة أو المتعددة’ [al-jumlah al-muzdawijah aw al-muta’addidah]와 복합문 ‘الجملة المركبة’ [al-jumlah al-murakkabah]과 내포문 ‘الجملة المتداخلة’ [al-jumlah al-mutadākhīyah]과 얹힌 문장 ‘الجملة المتشابهة’ [al-jumlah al-mutashābika]은 한국어의 겹문장으로 대응된다. 각각의 구성 방식과 특성을 보면 중복문 ‘الجملة المزدوجة أو المتعددة’ [al-jumlah al-muzdawijah aw al-muta’addidah]은 한국어의 대등 접속문으로 대응되고 복합문 ‘الجملة المركبة’ [al-jumlah al-murakkabah]은 종속 접속문으로 대응된다. 그리고 내포문 ‘الجملة المتداخلة’ [al-jumlah al-mutadākhīyah]은 내포문으로 대응된다.

둘째, 연구 대상인 접속문에서 한국어의 접속 어미와 아랍어의 접속 불변화사는 두 절을 잇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절 간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밝힌다. 한국어에서 대등 접속문의 접속 어미는 나열 관계, 대조 관계, 선택 관계를 보여 준다. 그리고 종속 접속문의 접속 어미는 인과 관계, 조건 관계, 목적 관계, 평가 관계, 결과 관계, 첨의 관계, 강조 관계를 보여 준다. 아랍어에도 중복문 ‘الجملة المزدوجة أو المتعددة’ [al-jumlah al-muzdawijah aw al-muta’addidah]의 접속 불변화사는 나열 관계, 순서 관계, 대조 관계를 보여 주고 복합문 ‘الجملة المركبة’ [al-jumlah al-murakkabah]의 불변화사는 조건 관계, 시간이나 장소 관계, 결과 관계, 인과 관계, 역접이나 제외 관계, 동반 관계, 비유 관계, 강조 관계를 보여 준다.

셋째, 접속문의 형식을 보면 한국어는 부동사형 언어이다. 대등 접속문이나 종속 접속문에는 주절의 서술어가 모두 정동사로 나타난다. 그러나 접속 어미를 취한 서술어는 부동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독립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 반면 아랍어는 접속사형 언어이다. 중복문 ‘الجملة المزدوجة أو المتعددة’ [al-jumlah al-muzdawijah aw al-muta’addidah]이나 복합문 ‘الجملة المركبة’ [al-jumlah al-murakkabah]에서 주절의 서술어과 접속 불변화사로 연결된 절의 서술어는 모두 정동사이다.

넷째, 한국어의 접속 표지는 ‘어미’에 속하고 아랍어의 접속 표지는 ‘불변화사’의 하위분류에 속한다. 이에 따라 양 언어의 접속 표지가 독립적인 품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리고 아랍어와 한국어의 대등 접속 표지는 무표지형, 단일 표지형, 이중 표지형이 모두 실현될 수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다만 아랍어에는 명사가 접속 표지 없이 나열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는 통사 층위에 따라 접속 표지가 달리 나타날 수 있고 아랍어는 모든 통사 층위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접속 표지의 위치는 한국어는 핵어 후치형 언어로서 ‘[A co] [B]’ 유형에 해당하고 아랍어는 핵어 전치형 언어로서 ‘[A] [co B]’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한국어와 아랍어에서는 모두 대용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어의 대등 접속문과 아랍어의 중복문 (Multiple or double sentence)은 순행 대용만 가능하고 대명사화, 무형 대용화만 가능하다. 아랍어의 복합문(complex sentence)도 같은 양상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종속 접속문이 순행 대용과 역행 대용일 때 대명사화, 재귀화, 무형 대용화가 모두 가능하고 bound variable이 주인 경우 대명사화가 허용되지 않는다.

여섯째, 한국어와 아랍어의 접속문에는 모두 성분 사이에 호응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만, 그 양상이 다를 뿐이다. 한국어 접속문에는 시제 제약, 문장 성분(주어-서술어) 제약, 문법 종결법의 제약이 있다. 아랍어 접속문에는 앞절과 뒷절의 동일 성분 사이에 성, 수, 인칭이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접속 문장은 피접속 문장과 격이 일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론서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어와 아랍어의 접속문을 분석하였다는 점, 양 언어 접속문이 가지고 있는 통사적·의미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번역이나 한국어 교육 연구의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론서에 나온 용례를 분석한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고 접속 표지에 따라 만들어진 개별 접속문이 가지고 있는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 정확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결과를 위해 앞으로 번역본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고영근, 남기심. (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권재일. (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김원필 외. (2008). *언어유형론 2, 격, 부치사, 제귀구문, 접속표현*. 월인.
- 남기심. (2001).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 남기심, 고영근, 유현경, 최형용. (2022). *새로 쓴 표준 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 레티탐. (2023).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접속문에 관한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현경. (1985).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현경. (2011). 접속과 내포. *국어학*, 60, 389-410.
- 유현경, 한재영, 김홍범, 이정택, 김성규, 강현화, 구본관, 이병규, 황화상, 이진호. (2019).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이계연. (2004). 아한 번역문에 나타난 결속성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8(2), 47-71.
- 이계연. (2010). 한국어-아랍어 번역에서의 논리연결 표지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0(3), 281-299.
- 이계연. (2012). *한국어와 아랍어 번역의 결속구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병학. (2019). *종합 아랍어 문법*. 문예림.
- 이익섭, 채완. (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익섭. (2005). *한국어문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규영. (2016). 아랍어의 접속표현-유형론적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20(3), 1-25.

장리릉. (2016). *한국어 · 중국어 · 영어 접속표현의 유형론적 대조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재희. (2004).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셀 리. (2016). *한국어와 아랍어의 내포문 대조 연구 - 아인샴스대학교 학습자의 번역 오류 대상으로-*. 아인샴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Ibrahim Fayz Alasmri. (2016). *Conjunction in Translation from English to Arabic: A Corpus-Based Study*. Macquarie University. Master thesis.

Ryding, Karin C. (2005). *A Reference Grammar of Modern Standard Arab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محمد عيد. (١٩٧١). *النحو المصغى*. مكتبة الشباب. الطبعة الأولى.

تمام حسان. (١٩٧٩). *اللغة العربية معناها ومبناها*. الهيئة المصرية العامة للكتاب . الطبعة الثانية.

عباس حسن. (١٩٨٧). *النحو الوافى*. دار المعارف. الطبعة التاسعة.

محمد إبراهيم عباده. (١٩٨٨). *الجملة العربية دراسة لغوية نحوية*. منشأة المعارف.

부록

표 3. 약어표

약어	용어	약어	용어
1	first person	NOM	nominative
3	third person	OBJ	object
ADJ.	adjective	pl.	plural
ADV	adverb	PRED	predicate
AVN	Accusative of Verbal Noun	PREP	preposition
CONJ	Conjunction	PRON	pronoun
CNJ	Conjunct	PRS	present tense
DEF	definite	PST	past tense
DM	Demonstrative Marker	PTCL	particle
GEN	genitive	SBJ.	subject
IQP	Interrogative Question Particle	SG	singular
M.	masculine	TOP	topic
Neg	Negative Particle		

다르위시 살마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메일: salmasalah_92@hotmail.com

Received on June 4, 2025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e 24, 2025

Accepted on June 30, 2025

